

전문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지역사회 참여 및 정주 인식 탐색: O대학교 성인친화형 교육과정 참여자를 중심으로*

박 선 경 (오산대학교)

안 현 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요약 〉

본 연구는 고등평생교육 맥락에서 전문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개인적 성장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관계 인식 및 정주 인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대학교 성인친화형 교육과정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GI)을 시행하고,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패러다임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생애전환과 지역 맥락을 반영한 학습 내용은 학습 참여 동기를 강화하였으며, 공동체 기반 학습과 정서적 지지는 학습 지속과 역할 인식 변화를 매개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실천 중심 교육과정 경험은 성인학습자가 자신을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에 대한 인식 확장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의 성과나 제도적 효과를 입증하기보다,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 인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학습자 경험의 미시적 관점에서 탐색함으로써 고등평생교육의 사회적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 주요어: 고등평생교육, 성인학습자, 학습 경험, 지역사회 참여, 정주 인식

* 이 논문은 오산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안현용 (ahyong@nile.or.kr)

I. 서론

저출산·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대학은 기존의 학령기 중심 고등교육기관의 역할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대학은 학령기 교육을 넘어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전환을 요구받고 있으며, 특히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 확대와 지역 기반 인재 양성은 대학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고등평생교육 정책은 대학을 지역의 평생학습 거점으로 전환하고,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성과가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안현용, 2025). 그러나 대학과 지역의 관계를 설명하는 논의는 주로 제도 설계, 사업 성과, 거버넌스 체계 등 거시적·구조적 차원에 집중됐으며, 고등평생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실제 학습 경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참여로 확장되는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특히 기존 성인학습자 연구는 학습 참여 동기, 학습 만족도, 역량 변화 등 개인 차원의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했으며(김시영·김시현, 2025; 박지희·안현용, 2022; 정미옥, 2025), 대학에서의 학습 경험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탐색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박선희, 2024). 이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대학 학습 경험을 개인 내부의 변화로만 이해하기보다,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확장되는 관계적·과정적 경험으로 재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고등평생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개인 차원의 학습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기반 학습과 상호작용을 거쳐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의 혁신 성과나 정책 효과를 입증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의미화되고 실천으로 전이되는지를 학습자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전문대학은 실무 중심 교육과정, 지역 밀착형 운영, 동질적인 성인학습자 집단이라는 특성을 보여, 고등평생교육 맥락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비교적 빠르게 지역사회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교육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기존 성인학습자 연구는 주로 개인의 학습 동기, 만족도, 역량 변화 등 개인 차원의 성과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전문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 인식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O대학교 성인친화형 교육과정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 참여 동기에서 출발하여 공동체 기반 학습 경험을 거쳐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성 형성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등평생교육의 분석 범위를 개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장하고, 전문대학 성인친화형 교육과정이 지역 기반 학습과 실천을 매개하는 경험적 장으로 작동하는 조건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성인친화형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성인학습자의 동기와 기대는 무엇인가?

둘째, 대학 내 공동체 기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인학습자의 정체성 변화와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셋째, 대학에서의 학습 경험은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 인식으로 어떻게 확장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고등평생교육의 개념과 정책적 변화

최근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사회 변화가 심화하면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령기 중심의 고등교육 체제만으로는 사회와 지역의 전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경계를 재구성하려는 논의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생애에 걸친 고등 수준의 학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고등평생교육이 부상하였으며, 이는 대학이 성인학습자를 포함한 평생학습의 기반으로 기능해야 함을 강조한다(노일경·정혜령·허준, 2024; 한승희·이은정, 2016).

고등평생교육은 단순한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넘어, 대학의 교육 철학과 제도, 운영 체계를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체제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개방성, 유연성, 접근성을 핵심 원리로 하여 성인학습자의 학습 지속과 삶의 맥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현되며, 최근에는 대학의 지역 연계 기능과 결합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이병식, 2021; Barua & Lockee, 2024).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등평생교육이 지역 문제 해결과 인재 양성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이 지역혁신과 연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양병찬, 2021). 우리나라의 고등평생교육 정책은 2008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기점으로 전개되어,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과 유연한 학사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발

전해 왔다. 이러한 흐름은 2019년 LiFE(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사업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으며, 고등교육 체계를 학령기 중심 구조에서 성인학습자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윤옥한, 2025). 특히 최근 정책은 성인학습자의 학습 이수 이후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로의 확장을 강조함으로써, 고등평생교육의 성과를 개인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조명하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지역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정주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책 목표와도 맥을 같이한다(이상엽 외, 2024).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된 HiVE(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사업과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는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교육부, 2024). 이들 정책은 실무 중심 교육과 지역 밀착성을 지닌 전문대학의 고등평생교육 기능을 지역 기반 학습과 실천의 장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이하은 외, 2023; 주호진 외, 2024). 그러나 이러한 고등평생교육 정책 논의는 주로 제도 설계와 성과 지표 중심으로 축적되어, 성인학습자의 실제 학습 경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성 형성으로 확장되는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정책에서 강조하는 ‘지역 정주 기여’가 개인의 학습 경험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설명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평생교육 정책이 지향하는 지역 기반 학습과 정주 담론을 거시적 제도 성과의 관점이 아니라,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 변화 과정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등평생교육에서의 지역혁신 가능성을 학습자 경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맥락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고등평생교육 맥락에서의 성인학습자 연구 동향

고등평생교육의 확대와 함께 대학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특성에 관한 연구도 점차 축적되어 왔다. 성인학습자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안드라고지 이론, 변혁적 학습 이론, 경험학습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들 이론은 성인학습자의 학습 동기, 학습 과정, 학습 성과를 설명하는 주요 분석 틀로 활용됐다(Knowles, 1980; Kolb, 1984; Mezirow, 1991). 이들 이론은 공통적으로 성인학습자가 자기주도성과 목적성을 지니며, 개인의 삶의 경험과 사회적 맥락이 학습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내 성인학습자 연구 역시 대학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 동기, 학습 만족도, 학업 지속 의도, 역량 변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수의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 동기를 직무 역량 강화, 경력 전환, 자아실현 등으로 유형화하고, 대학 학습 경험이 자기효능감, 학습 몰입, 삶의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권다영·강승희,

2024; 안현용, 2022, 이경란·박지혜, 2021). 이러한 연구들은 고등평생교육이 성인학습자의 개인적 성장과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편, 학습을 사회적 참여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실천공동체(CoP) 관점은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개인 내부의 변화가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공동의 실천을 통해 의미를 협상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한다(Lave & Wenger, 1991; Wenger, 1998). 이에 기반한 연구들은 대학 내 학습공동체 경험이 성인학습자의 학습 몰입과 지속을 강화하고(장창성 외, 2024), 관계망 형성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학습 성과의 확장에 기여함을 보고하고 있다(김명량 외, 2024).

그러나 기존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주로 참여 동기, 만족도, 역량 향상 등 개인 차원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써, 고등평생교육 맥락에서 학습 경험이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성 형성으로 확장되는 과정에 대한 경험적 설명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김윤정·김현진, 2024; 박선희, 2024). 또한 고등평생교육 정책이 최근 지역 정주 기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윤옥한, 2025),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정주 인식 강화로 이어지는 구체적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 연구는 제한적이다(이상엽 외, 2024). 특히 실무 중심 교육과 지역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교육적 맥락이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지역사회 실천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그리고 학습 경험이 지역에 대한 정서적 유대와 정주성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에 대한 미시적·질적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남경진, 2025; 박선미, 2025).

이에 본 연구는 고등평생교육 맥락에서 전문대학 성인친화형 교육과정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 참여 동기와 대학 내 학습 경험이 공동체 기반 경험을 거쳐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성 형성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성인학습자 연구의 분석 범위를 개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학습자 경험의 관점에서 고등평생교육의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3. 본 연구의 이론 틀

본 연구는 전문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개인적 성장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성 형성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성인학습 이론과 공동체 기반 학습 관점을 통합한 과정적·관계적 이론 틀을 설정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개인 내부의 성취로 환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전이되는 실천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안드라고지 이론과 변혁적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 동기와 학습 경험의 의미를 해석한다. 안드라고지 이론은 성인학습자가 자기주도성과

목적성을 지니며, 자신의 경험을 학습 자원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역할과 발달 과제에 연계된 학습 준비성을 갖는다고 설명함으로써, 성인학습자의 대학 참여 동기와 학습 기대를 이해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Knowles, 1980). 또한 변혁적 학습 이론은 성인학습자가 비판적 성찰과 담론을 통해 기존의 의미 체계를 재구성하고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대학 학습 경험이 성인학습자의 인식 변화와 역할 인식 전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해석하는 데 기여한다(Mezirow, 1991).

다음으로 본 연구는 경험학습 이론과 실천공동체(CoP) 관점을 통해 학습 경험이 실천과 참여로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경험학습 이론은 구체적 경험 - 성찰 - 개념화 - 실험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이 실천으로 전이된다는 점을 강조하며(Kolb, 1984), 이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이 강조되는 전문대학 맥락에서 학습 경험이 비교적 빠르게 지역사회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아울러 실천공동체 관점은 학습을 개인적 인지 과정이 아니라 공동의 실천과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와 정체성이 형성되는 사회적 참여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공동체 관계 형성과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Lave & Wenger, 1991; Wenger, 1998).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학습 참여 동기 및 기대 → 대학 내 학습 경험과 정체성 변화 → 공동체 기반 상호작용과 실천 → 지역사회 참여 → 정주 인식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적 구조로 개념화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혁신은 제도적 성과나 정책 효과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실천과 참여로 전이되며 참여 주체로 인식이 확장되어 가는 미시적 과정으로 이해된다(남경진, 2025; 양병찬, 2021).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패러다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학습 참여 동기와 기대는 인과적 조건으로, 대학 내 학습 경험과 공동체적 맥락은 중심 현상과 맥락적 조건으로,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관계적 지원은 중재적 조건으로, 학습자의 실천과 상호작용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성 형성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이러한 틀은 이후 분석 과정에서 성인학습자의 경험을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 경험의 전이와 확장을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석 기준으로 기능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특정 성인친화형 교육과정 참여자의 경험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질적 사례연구로 설계되었다. 다만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 인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조건-상호작용-결과’의 흐름 속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패러다임을 분석 틀을 차용하여 범주 간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 패러다임은 이론 생성 절차의 전면 적용이 아니라, 자료 해석의 일관성과 과정적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 기준으로 기능한다.

자료 수집은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였다. FGI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각 회차는 약 150~170분 내외로 실시되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되, 참여자가 자신의 학습 경험과 인식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전사 후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검토·수정하여 분석 자료로 확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O대학교 성인친화형 교육과정에 참여한 성인학습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양적 일반화의 목적이 아니라 현상의 심층적 이해와 의미 탐색을 목표로 하는 질적 사례연구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경험을 보유한 참여자를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특성

참여자	학번	연령대	참여형태	면담 일자	입학 당시 활동	현재 활동
P1	2022	50대 후반	졸업	2025.10.17. 2025.10.22. 2025.10.27. (총 480분)	무직(가정주부)	평생교육활동가
P2	2022	50대 중반	졸업		학원 사무직	평생교육 강사
P3	2023	50대 초반	졸업		유아 영어 강사	평생교육사 취업
P4	2023	50대 초반	졸업		학습지 관리자	주민자치위원
P5	2023	40대 후반	졸업		마을 코디네이터	작은도서관장
P6	2024	40대 후반	재학		1인 기업대표	평생교육사 취업
P7	2024	40대 후반	재학		무직(가정주부)	교육기부 활동
P8	2024	50대 초반	재학		무직(가정주부)	평생교육 강사
P9	2024	40대 후반	재학		일반 회사원	교육기부 활동
P10	2024	50대 후반	재학		평생교육활동가	평생교육활동가

O대학교 성인친화형 교육과정은 2022년부터 3년간 HiVE 사업의 ‘지역특화학과’로 운영되었으며, 2025년 현재는 성인학습자 전형 ‘RISE학과’로 전환·운영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지역 소멸 대응과 지역 정주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고등평생교육 정책사업에 참여한 졸업생과 재학생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직업, 학력, 경력 등 개인적 배경이 다양한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표집 구성은 학력 비교가 아닌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입학 동기와 학습 경험 양상을 폭넓게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와 전문대학이 연계·협력하는 고등평생교육과정에서의 학습 경험이 어떻게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넘어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 인식으로 확장되는지 그 양상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사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2. 자료 분석 절차 및 분석 틀

자료 분석은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절차를 참고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단계로 수행하였다.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전사 자료를 문장 및 문단 단위로 분절하여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중심으로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후 유사한 개념들을 통합하여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를 구성하였고, 추가 자료에서 새로운 개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점에서 개념 도출을 종료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은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패러다임을 적용하였으며,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요소로 구조화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축코딩 단계에서는 이 분석 틀을 적용하여 범주 간 관계를 조건 - 행위 - 결과의

〈표 2〉 Strauss & Corbin(1998)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 틀

패러다임 요소	개념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의미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배경	성인학습자가 고등평생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배경, 학습 동기, 기대
중심 현상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핵심 경험 또는 현상	학습 과정에서 성인학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학습 경험
맥락적 조건	중심 현상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환경	성인친화 학사제도, 지역기반 전문대학 특성 등 학습 경험이 형성되는 제도적·관계적 환경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요인	학습 경험의 변화를 촉진·완화하는 관계적 요인
작용·상호작용 전략	중심 현상에 대응하여 개인이 취하는 행동과 전략	학습자가 상황에 대응하며 선택하는 행동 및 대응 전략
결과	작용·상호작용의 누적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	개인 및 지역사회 차원의 변화

흐름 속에서 과정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범주 간 관계를 통합·정교화하여 연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인과적 조건은 성인학습자의 고등평생교육과정 참여 배경과 동기 및 기대를, 중심 현상은 학습 과정에서 성인학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핵심 경험을 의미한다. 맥락적 조건은 학습 경험이 형성되는 제도적·관계적 환경을 의미하며, 중재적 조건은 학습 경험의 변화를 촉진·완화하는 관계적·상호작용적 요인을 의미한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학습자가 상황에 대응하며 선택하는 행동 및 대응 전략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결과는 이러한 과정의 누적 효과를 통해 나타나는 개인 및 지역사회 차원의 변화를 포괄한다.

본 분석 틀은 연구 분석 이전 단계에서 설정한 이론적 탐색구조로, 실제 범주와 하위 범주는 인터뷰 자료의 개방 코딩과 축 코딩 과정을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상위범주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의미 단위로 통합한 내용 범주이며, 축코딩 단계에서는 이러한 내용 범주를 근거이론 패러다임 요소에 따라 기능적으로 재배치하였다. 즉 상위범주는 분석결과의 ‘무엇(what)’을 설명하고, 근거이론 패러다임 요소는 범주 간 관계와 과정의 ‘어떻게(how)’를 설명하는 분석 틀로 활용되었다. 그 관계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이는 분석 과정의 구조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표 3〉 개방코딩 상위범주와 근거이론 패러다임 요소 간의 기능적 관계

개방코딩 결과 상위범주(내용 범주)	축코딩 단계의 기능적 배치	근거이론 패러다임 요소
학습 동기와 기대	학습 참여의 출발 조건	인과적 조건
성인학습자의 지역사회 참여 주체 인식 형성	분석 결과를 관통하는 핵심 경험	중심 현상
성인친화적 교육제도	학습 경험이 형성되는 구조적 맥락	맥락적 조건
공동체 기반 학습 경험	경험의 변화·확장을 매개하는 요인	중재적 조건
인식과 역할 변화	학습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식	작용·상호작용 전략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 형성	학습 경험의 누적 결과	결과

3. 범주화 결과 및 연구의 타당성·윤리적 고려

이상의 분석 절차와 분석 틀에 따라 수행된 개방·축·선택 코딩의 결과,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은 개념, 하위범주, 상위 범주, 핵심 범주로, 단계적으로 범주화되었다.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총 34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13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상위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범주화 결과는 근거이론 패러다임 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예시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분석 과정에 따른 범주화 결과 예시

상위범주(Categories)	하위범주(Sub-categories)	도출된 개념(Concepts) 예시
학습 동기 및 기대	- 생애전환기 학습욕구 - 실용적 목적의 추구	- 정체된 삶의 돌파구 - 진직 위한 자격증 취득
성인친화적 교육제도	- 지역기반 전문대학의 제도적 운영 - 동질적 학습자 집단	- 다양한 장학 혜택 - 주말반, 블랜디드 수업 등
공동체 기반 학습 경험	- 정서적 지지와 유대 - 협력적 학습 과정 - 대학 소속감의 고취	- 교수, 동기 간 정서적 교감 - 모둠 활동을 통한 동료애 - 캠퍼스 생활 만족
인식 및 역할의 변화	- 자기 효능감 및 자아 회복 - 전문적 정체성 형성 - 사회적 시각의 변화	- 학습 주체성 회복 - 이론과 현장의 접목 -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	- 실천적 지역사회 기여 - 지역사회 참여 심화 - 능동적 정주 의사 형성	- 지역사회 봉사/제능 기부 - 지역사회 리더로 활동 심화 - 타지역 이주 생각 철회

본 연구는 통계적 일반화가 아닌, 분석 결과를 이론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분석적 일반화에 초점을 둔 사례연구이다. 연구의 타당성은 반복적 비교 분석과 범주 간 관계 검토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개념과 범주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 상태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삼각 검증(triangulation),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 동료 검토(peer debriefing)를 실시하여 연구자의 해석 편향 최소화, 진술의 정확성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윤리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익명성 보장, 독립적 면담 환경 조성, 주관적 개입 최소화 등을 위한 자기 성찰, 연구 목적 외 자료 사용 제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질적연구 윤리 원칙을 준수하였다.

IV.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성인친화형 교육과정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근거이론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대학 고등평생교육과정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은 ① 학습 동기와 기대, ② 성인친화적 교육제도, ③ 공동체 기반 학습 경험, ④ 인식 및 역할의 변화, ⑤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 등 다섯 개 상위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이들 범주는 근거이론 패러다임의 요소에 따라 재배치·정리하였다.

1. 전문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 동기와 기대: 인과적 조건

본 연구에서 인과적 조건은 성인학습자가 고등평생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동기, 그리고 학습 참여 이전에 형성된 기대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성인학습자들은 개인적·사회적 전환기 상황 속에서 기존 삶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습 참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생애전환기 학습 욕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삶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생애전환기 경험을 계기로 은퇴, 경력 단절, 가족 역할 변화 등 기존 삶의 흐름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학습은 이를 위한 돌파구로 선택하였다. 이는 ‘인생 이모작 설계’, ‘정체된 삶의 돌파구’, ‘자기 성장에 대한 갈망’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P1)’,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재발견하기 위해(P3)’, 그리고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P7)’,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P4) 삶의 전환점으로 대학에 진학하였다.

일을 그만두고 나니까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P3).

이러한 실천적 학습 참여 동기는 성인학습자가 대학을 “삶의 전환점”으로 인식함을 보여준다.

2) 실용적 목적의 추구

일부 참여자들은 자격증 취득, 직업·경력 전환, 경제적 자립, 전문 지식 습득 등 실질적인 역량을 획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들은 최종 학력과 직업군, 연령대가 다양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직장인은 경력 및 직업 전환에 대한 기대와 요구(P2, P3, P4, P6, P9)가 높았다.

대학원을 갈지 여기(O대학교)를 올지 많이 고민했어요.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교수님에 대해 검색도 해보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제대로 된 평생교육사를 할 거면 처음부터 제대로 실무를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지원했어요. 50대를 시작하며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고, 앞으로 나의 20년을 위한 도전이었어요(P4).

이와 같이 인과적 조건은 성인학습자가 학습 참여를 결심하게 된 출발점으로서, 이는 학

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회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2. 성인학습자의 지역사회 참여 주체 인식의 확장: 중심 현상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관통하는 중심 현상은 성인학습자가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변화 과정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성인학습자가 자신을 개인적 역량 향상의 주체로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변화 과정을 의미한다. 즉, 학습 경험이 개인 내부의 인식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와 활동을 자신의 실천 영역으로 재인식하는 과정이 중심 현상으로 나타났다.

1) 지역사회 인식의 확장

일부 참여자들은 대학 교육 참여 이전에도 지역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이를 ‘지역사회’ 차원의 실천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지역사회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접하면서, 자신이 수행해 온 활동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지역사회라는 틀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주민자치도 지역사회 단체의 한 부분이란 걸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제 가족들한테도 당당하게 ‘지역사회 일을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P10).

이는 학습 경험이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확장하고, 기존의 활동을 새로운 의미 체계 속에서 재구성하도록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2) 시민적 책임감과 역할 의식 형성

참여자들은 학습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누군가의 일’이 아닌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자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나타났다. 또한 좋은 시민이 되고 싶다(P3)는 자기 인식은 성인학습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적 주체로 자리매김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어 졸업 후에 뭘 한다는 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교수님이 평생교육 활동가에 지원해보라고 하셔서 용기내서 지원했는데 합격했어요(중략). 진짜 전공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 신나게 활동하고 있어요(P1).

3) 공적 참여와 발화의 확대

일부 참여자들은 학습 경험을 토대로 지역 행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역 정책이나 평생교육의 의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지역사회 내 공적 장에서 발화하고 제안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습을 통해 정책과 시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정책의 의미를 설명하고 전달하려는 인식도 나타났다.

평생학습축제 때 시장님을 의전하면서요,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생각나서 평생교육을 지원하시면 정주성과 애함심도 커지고 병원도 덜 가니까 사회적 비용도 덜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봉사자가 그러니까 시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구요(P1).

이는 성인학습자가 학습을 매개로 지역사회 담론 형성에 참여하는 시민적 주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 성인친화적 교육제도: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형성되는 제도적·관계적 환경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은 성인친화적으로 설계된 지역 기반 전문대학의 교육제도와 동질적 학습자 집단이라는 맥락 속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다.

1) 지역 기반 전문대학의 제도적 운영(HiVE·RISE 사업)

참여자들은 지역 기반 전문대학이 운영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정책사업인 HiVE 사업과 RISE 사업 기반의 제도적·행정적 지원과 유연한 학사 운영이 학습 참여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인식하였다. 일부 학습자(P3, P8, P9)는 장학금 지원 제도와 같은 경제적 혜택이 학습 참여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제도적 지원이 성인학습자의 고등평생교육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라이즈사업으로 원예관리사 자격을 취득했잖아요. 그리고 졸업하고 바로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지역에서 이런 걸 운영해 주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지역이랑 연결돼서 배운 것을 바로 써먹을 수 있고 너무 좋았어요(P5).

2) 동질적 학습자 집단

유사한 연령대와 생애 경험을 지닌 학습자들로 구성된 학습환경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

하고, 학습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과거 학습 경험에서의 위축감이나 실패 경험을 지닌 성인학습자에게 동질적 집단 구성은 비교와 경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자신의 경험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집단적 동질성은 학습자 간 공감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였다.

젊은 학생들처럼 성적 가지고 비교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들 각자 사정이 있는걸 아니까 서로 배려하죠. 누구 하나 힘들다고 하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레포트도 도와주고 노트 필기도 나눠주고... 혼자서는 절대 못 왔어요(P9).

이러한 맥락적 조건은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중단되지 않고, 이후 공동체 기반 학습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형성하였다.

4. 공동체 기반 학습 경험: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인식 차원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역할 인식과 행동 전략의 변화로 확장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요인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성인학습자의 지역사회 참여 인식 형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중재적 조건은 공동체 기반 학습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지지, 협력적 학습,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천 경험을 포함한다.

1) 정서적 지지와 유대

참여자들은 학습 과정에서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로부터 경험한 공감, 격려, 이해가 학습에 대한 불안과 위축감을 완화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형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부분 디지털 능력 부족을 경험했으며, 이것이 중도 탈락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후배 1:1 멘토링제도는 학습 불안 완화, 정서적 안정, 지속적 학습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입학 때부터 짝지를 지어줘서 많이 의지했고(P9), 컴퓨터를 못 하는 후배를 도우면서 자신이 더 성장했다(P5)고 하였다. 특히 과거 학습 경험에서의 실패나 학업 공백으로 인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던 성인학습자에게 이러한 정서적 지지는 학습 참여를 유지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교수자와의 수평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학습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이어졌다.

멘토가 000선배님이어서 정말 든든했어요. 그냥 공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생 얘기도 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전화도 주시고요(P7).

(2022년 학과가 신설된) 초기에는 교수님도 우리도 처음이라 우왕좌왕했지만, 교수님이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게 느껴져 더 뽄뽄 뭉친 것 같아요(P2).

이러한 정서적 지지와 유대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중단을 예방하고 학습 몰입과 지속적인 참여는 물론, 새로운 역할과 실천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안전망으로 기능하였다.

2) 협력적 학습 과정

참여자들은 개별 학습이 아닌 공동의 과제 수행과 경험 공유를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학습 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의 이해도와 적용 가능성이 확장되었다고 인식하였다. 학령기 주입식·강의식 교육에 익숙한 성인학습자들은 입학 초기에 대부분 팀 기반 학습이 매우 당황스럽고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둠 활동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학습과 협력적 학습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교수진의 중재와 동료 간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며, 협력적 참여 수업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엔 내 공부하러 왔는데 왜 자꾸 남을 챙기며 같이 가라고 하는지 솔직히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을 옆에 동기들이 보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수님이 매번 강조하는 집단지성을 발견했어요. 어느새 제가 모둠 중심에 있었어요(P4).

협력적 학습 과정은 단순 과제 수행을 넘어 타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후 지역사회 활동에서 요구되는 협력 역량을 사전에 경험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협력적 학습 경험은 학습자의 인식 변화를 실제 행동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였다.

3) 지역사회 공헌활동

참여자들은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 활동, 행사 참여, 사회공헌활동 등에 적용하면서 학습의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특히 한 참여자(P4)는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면서 학습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실천 경험은 학습자가 자신을 ‘배우는 사람’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선배님들이 사회공헌단을 만들고 처음에는 그냥 의무로 참여했는데, 어르신들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다음에도 또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몽클하면서 이 감정이 뭐지. 그때부터 지역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P9).

이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학습 경험의 ‘결과’라기보다, 학습자의 인식 변화를 촉진하고, 이후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성 형성으로 이어지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매개하는 조건으로 기능하였다.

5. 인식 및 역할의 변화: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성인학습자가 교육과정 속에서 상황에 대응하며 선택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성인학습자들은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가능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1) 자기효능감 및 자아 회복

참여자들은 학습 성취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자신은 늙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성인학습자(P1)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줄고, ‘재미있게 늙어가는’ 관점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학습이 심리·정서적 회복 기반이 됨을 보여준다. 또한 어디를 가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더 생겼다는 성인학습자(P3) 진술은 사회적 자본의 확대를 보여준다.

예전엔 ‘난 공부 못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P2).

이는 학습 경험이 자기효능감 회복 과정임을 보여준다. 특히 중장년 학습자에게 학업 성공 경험은 과거 실패 경험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2) 전문적 정체성 형성

참여자들은 평생교육사, 평생교육 강사, 지역활동가 등 전문적 역할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다. 졸업생은 실제 자격증 취득 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다고 하였다. 학습자는 자신을 단순한 개인 학습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옆에 도시에 강사채용 공고가 뜬거예요. 우리가 학교다니며 자격증을 많이 땀잖아요. 배운 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고 모의면접 했던 거 기억 더듬어 면접보고 나오면서 그렇게 제 자신이 엄청 대견한 거예요. 물론 합격했어요 하하하(P3).

3) 사회적 시각의 변화

참여자들은 학습 과정에서 개인적 문제나 지역 현상을 개별적 사건으로 인식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이를 사회 구조 및 정책, 공동체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지역 사회 및 공공 영역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참여자들(P2, P4, P7)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진 국가정책, 지역혁신 담론,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학습을 통해 개인의 학습 경험이 사회적 변화와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학습을 통해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되었다.

예전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라 생각했는데,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법, 제도, 정책이랑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지역문제나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넘기지 않고 왜 그런지 생각하게 돼요(P2).

이는 학습 경험이 개인 중심 사고에서 사회문제 인식과 참여 의지를 증진시켰으며, 공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게 되는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지역 사회 참여와 정주성 형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략적 기제가 되었으며, 학습 경험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확장해 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6. 지역사회 참여 경험과 정주 인식: 결과

본 연구에서 결과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누적되며 나타난 개인 및 지역사회 차원의 변화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학습 경험은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정주 인식 확장으로 구체화되었다.

1) 실천적 지역사회 기여

참여자들은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고, 자원봉사·재능기부·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봉사활동 탐색과 시민 참여 확대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작은 도서관 활동, 주민자치활동, 마을 사업 모니터링, 교육기부 활동 등 구체적 실천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습 경험이 행동 변화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

주민자치가 지역사회 활동이라는 걸 수업을 통해 알게 됐어요.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도 하고 주민자치회 교육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평생교육 활동 기여를 인정받아 시장님께 표창도 받았어요(P10).

O대학교 성인친화형 교육과정은 HiVE·RISE 사업 특성상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기반의 성인학습자들은 대학에서의 학습 경험을 계기로 이전에는 낯설었던 ‘지역’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대학이 성인학습자에게 지역 인식의 촉매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2) 지역사회 참여의 심화

성인학습자들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려는 기대와 의지가 높았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의 학습 경험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과 정보를 습득하는 반복된 교육과정을 통해 개인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실천으로 심화되었다.

저는 교수님의 권유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공모하여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위촉되자마자 직책을 주시고 전공자라고 기대가 커서 부담도 크지만, 지역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긍심도 큼니다(P4).

성인학습자들은 학습 경험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인식이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참여로 전환되었다. 이는 고등평생교육이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능동적 정주 의사 형성

참여자들은 지역 활동을 ‘중장년 이후 삶의 방식’으로 연결하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정주성과 함께 지역사회 활동을 개인의 삶의 질과 연결하는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과 정주 의지를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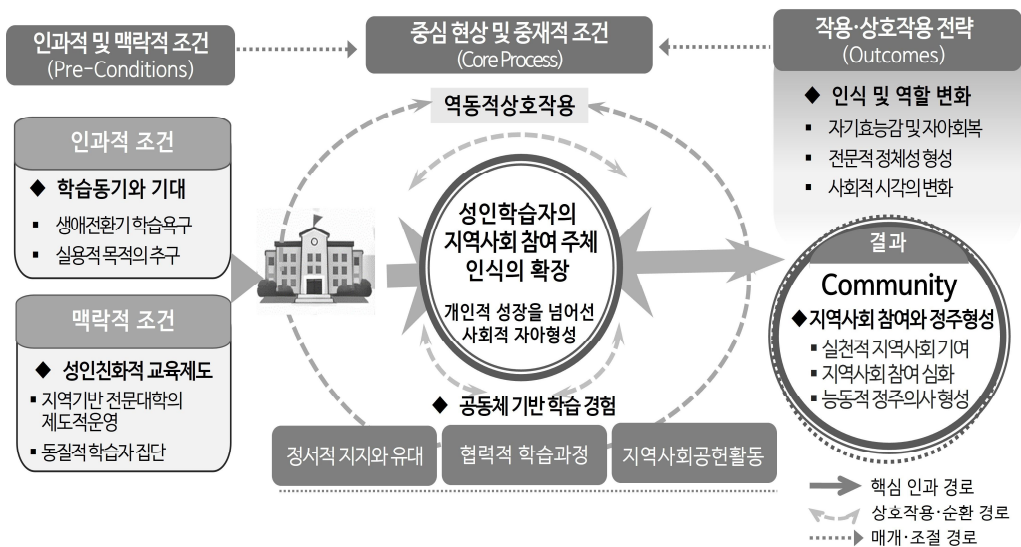
얼마 전 동생이 언제 다시 00시로 올 거냐고 전화를 했어요. 사실 저는 00시에 살고 있지만 관심도 없고 언젠가 제가 살던 도시로 갈 거란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바로 “난 여기 계속 살 건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내가 2년간 뿌려놓은 게(사람과 지역 활동) 얼마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말을 해 놓고 깜짝 놀랐어요(P7).”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성인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지역사회 읽기·참여하기·소속감·정주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정주’는 장기 거주 이동이나 생활 기반의 객관적 변화로서의 ‘행동 정주’를 직접 측정할 개념이 아니라, 학습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애착, 소속감,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의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인식(태도·의지)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주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관계적 기반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경험 진술을 통해 기술하였음을 밝혀둔다.

7. 소결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전문대학 성인학습자가 성인친화형 교육과정 학습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 인식으로 확장되는 경험의 구조로 성장하는 과정을 근거이론 패러다임 요소를 적용하여 모형화하였다. [그림 1]은 개방코딩과 축코딩, 선택코딩을 거쳐 도출된 핵심 범주 간 관계를 시각화한 것이다.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상위범주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의미 단위로 통합한 내용 범주이며, 축코딩 단계에서는 이러한 내용 범주를 근거이론 패러다임의 요소에 따라 기능적으로 재배치하였다. 즉 상위범주는 분석결과와의 ‘무엇(what)’을 설명하고, 근거이론 패러다임 요소는 범주 간 관계와 과정의 ‘어떻게(how)’를 설명하는 분석 틀로 활용하였으며, 각 요소 간의 인과적·상호작용적 관계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림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 범주 구조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근거이론 분석 틀에 따라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학습 참여 동기에서부터 학습 경험과 공동체적 상호작용을 거쳐 지역사회와의 관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경험을 개인 차원의 변화로 한정하지 않고, 대학의 학습 경험이 지역사회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연결되는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범주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하여 논의하였다.

1. 생애 전환과 지역 맥락을 반영한 학습 주제의 의미

본 연구에서 성인학습자들은 생애전환기 경험과 실용적 필요를 배경으로 학습에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학습 참여 동기는 자기 삶의 맥락 속에서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Knowles(1980)가 제시한 성인학습 이론의 자기주도성, 문제 중심성, 실천 지향성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는 성인학습자가 단순한 교육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기 위해 학습을 활용하는 주체임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이 성인학습자의 참여 동기를 주로 학습 만족, 학업 지속, 개인 역량 향상 등 개인 차원의 성과로 설명해 온 것과 달리(박선희, 2024; Cross, 1981), 본 연구는 이러한 학습 참여 동기가 이후 지역사회와의 관계 인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즉,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는 개인적 자기 계발에 머무르기보다, 생애전환기 상황 속에서 자신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다시 인식하는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참여자들은 학습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가능성을 재점검하면서, 기존의 생활 공간과 지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는 학습 주제가 성인학습자의 생애 맥락과 지역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때, 학습 경험이 개인 내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등평생교육에서의 학습 주체는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는 학습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자기 삶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재구성해 나가는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2. 공동체 기반 학습을 통한 학습 주체의 관계적 형성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 고등평생교육과정에서의 공동체 기반 학습 경험은 성인학습자의 학습 지속과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학습을 개인의 성취 활동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과 연결된다. 특히 학습자 간의 정서적 지지와 협력적 관계는 학습 참여를 지속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공동체 기반 학습이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구조화하는 핵심적인 맥락임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들은 공동체 기반 학습 경험이 성인학습자의 소속감, 몰입, 학습 지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해 왔다(장창성 외, 2024; Lave & Wenger, 1991; Wenger, 1998). 본 연구 결과 역시 정서적 지지와 협력적 학습이 학습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본 연구는 공동체 기반 학습 경험이 학습 지속은 물론, 학습자의 인식 변화와 행동 방향을 매개하여 지역사회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학습공동체의 효과를 주로 학습 내부의 성과로 설명해 온 한계를 보완하며, 고등평생교육 맥락에서 공동체 기반 학습이 학습 경험의 확장을 매개하는 중요한 경험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학습 주체의 지역사회 참여 확장과 정주 인식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 고등평생교육과정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은 학습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위치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 이후 즉각적인 행동 성과로 나타나기보다는, 지역에 관한 관심과 애착,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같은 인지적·정서적 차원에서 먼저 나타났다. 이는 학습 경험이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로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선행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고등평생교육 연구와 정책 담론은 성인학습자의 역량 개발과 학위 취득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으며(윤옥한, 2025), 최근에는 지역 정주 기여도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습 경험이 실제로 정주 의사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제한적이었다(이상엽 외, 2024).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사회적 시각을 확장하고, 자신을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탐색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학습 경험과 정주 인식 간의 연결 가능성을 보완한다. 이는 정주를 주로 경제적·제도적 요인 중심으로 설명해 온 기존 논의를 넘어, 학습 경험을 통한 관계 형성과 역할 인식 변화와 같은 비가시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를 확장한다.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전문대학 고등평생교육 맥락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개인 차원의 성취나 변화에 한정하지 않고, 학습 주체 형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확장이라는 과정적 관점에서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고등평생교육을 제도나 정책 성과 중심으로 이해해 온 기존 연구의 시각을 보완하고, 성인학습자의 실제 학습 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조명하였다.

둘째, 그동안 LiFE, HiVE, RISE 등 고등평생교육 관련 정책은 제도 설계와 사업 성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정책이 전제하는 효과가 학습자의 실제 학습 경험과 인식 변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 데 정책적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 동기, 공동체 기반 학습 경험, 관계 형성 과정이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 인식으로 확장되는 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고등평생교육 정책이 단순히 성인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생애 맥락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공동체 기반 학습 환경 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전문대학(O대학교)의 성인친화형 교육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로, 연구 맥락의 특수성, 표집의 제한성 등으로 연구 결과를 모든 고등평생교육기관이나 성인학습자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통계적 일반화가 아닌 분석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여, 고등평생교육 맥락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 인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분석 틀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유형의 대학(4년제 대학, 원격대학, 평생교육 특성화 대학 등)을 포함한 비교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틀의 적용 가능성과 설명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습 경험의 긍정적 변화 과정에 초점을 두었으나, 모든 성인학습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와 확장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 지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역사회 참여로 확장되지 못한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고등평생교육과정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보다 균형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논의한 정주 인식은 학습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식과 의지 수준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실제 장기 거주나 생활 기반 변화와 같은 행동 차원의 정주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학습 이후 경로를

추적하고, 정주 인식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변형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문대학 고등평생교육 맥락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개인 - 공동체 - 지역사회 차원으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학습 경험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인식과 정주 인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는 향후 고등평생교육에서 학습자 경험과 지역사회 연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논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다영·강승희(2024). 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업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지지, 전공만족, 자기효능감, 학습 몰입의 구조적 관계. **교육혁신연구**, 34(4), 195-210. <https://doi.org/10.21024/pnuedi.34.4.202412.195>
- 교육부(202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운영 방향**. 교육부.
- 김명량·윤초룡·류권홍·조민수(2024).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예측요인 탐색 연구: 인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26, 121-146. <https://doi.org/10.34165/urbanr.2024..26.121>
- 김시영·김시현(2025). 언어치료전공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의도와 참여저해 요인, 교육만족도의 관계. **언어치료연구**, 34(2), 117-126. <https://doi.org/10.15724/jslhd.2025.34.2.117>
- 김윤정·김현진(2024).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가 학생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미래사회**, 15(3), 245-264. <https://doi.org/10.22987/jifso.2024.15.3.245>
- 남경진(2025). 대학 성인학습자 관련 연구동향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31(1), 149-168.
- 노일경·정혜령·허준(2024). 고등평생교육과정 개념 구성요소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30(2), 28-52.
- 박선미(2025). 중노년층 성인학습자의 대학 생활 경험 탐색: 2년제 대학 야간반 진학자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21(1), 90-116. <https://doi.org/10.26857/JLLS.2025.2.21.1.90>
- 박선희(2024). 성인학습자의 학위과정 대학생활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10(8), 619-628. <https://doi.org/10.47116/apjcri.2024.08.46>
- 박지화·안현용(2021). 성인학습자의 대학 평생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개인배경, 대학특성 및 학습경험을 중심으로. **성인계속교육연구**, 12(3), 1-27. <https://doi.org/10.20512/kjace.2021.9.30.27>
- 안현용(2022). 성인전담대학 성인학습자의 개인특성과 대학선택요인, 사회적 지지가 대학몰입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대학 몰입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5(2), 107-144. <https://doi.org/10.36234/kace.2022.25.2.107>
- 안현용(202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에 대한 언론 담론 분석: 뉴스 빅데이터 기반 정책수용성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43(3), 305-345. <https://doi.org/10.22553/keas.2025.43.3.305>
- 양병찬(2021). 한국 대학의 평생교육적 구조 전환 -‘고등평생교육체계’의 관점에서-. **교육종합연구**, 19(3), 135-157. <https://doi.org/10.31352/JER.19.3.135>
- 윤옥환(2025).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기본 계획 의미분석. **문화기술의 융합**, 11(1), 599-608.
- 이경란·박지혜(2021). 고령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학습몰입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17(1), 147-172. <https://doi.org/10.26857/JLLS.2021.2.17.1.147>
- 이병식(2021). 고등평생교육의 과제와 대안 탐색. **미래교육학연구**, 34(3), 1-25. <https://doi.org/10.35283/erft.2021.34.3.1>
- 이상엽·주상현·장지현·이규태(2024).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머신러닝 기반 시계열분석 및 지방대학의 역할.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4(2), 1-27. <https://doi.org/10.22340/>

seps.2024.05.14.2.1

- 이하은·윤주원·박예환·이한진(2023). 보편적 평생교육 개념 확장에 따른 디지털 교육기회 확대 정책제안.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11(4), 105-111. <https://doi.org/10.22716/sckt.2023.11.4.039>
- 장창성·홍소정·김정환·주재홍(2024). 성인학습자의 무형식학습 참여 유형과 비형식교육 및 사회 참여와의 관계: 잠재계층분석. **평생학습사회**, 20(4), 85-117. <https://doi.org/10.26857/JLLS.2024.11.20.4.85>
- 정미옥(2025). 평생교육원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학습참여동기, 학습활동인식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1), 115-142. <https://doi.org/10.4275/KSLIS.2025.59.1.115>
- 주효진·최미옥·최희용·정술(202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의 정책분석평가. **지방정부연구**, 28(1), 197-222. <https://doi.org/10.20484/klog.28.1.197>
- 한승희·이은정(2016). 고등교육 보편화와 체제적 복잡화: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의 화학적 결합. **평생학습사회**, 12(1), 1-31.
- Barua, L., & Lockee, B. B. (2024). A review of strategies to incorporate flexibility in higher education course designs. *Discover Education*, 3(1), 127. <https://doi.org/10.1007/s44217-024-00213-8>
- Cross, K. P. (1981). *Adults as learners: Increasing participation and facilitating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Knowles, M. S. (1980). From pedagogy to andragogy. *Religious Education*, 75(4), 202-211.
-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Prentice Hall.
-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zirow, J.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Wenger, E.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저자 정보

박 선 경 Park, Sunkyoung	소 속: 오산대학교 평생학습학과 조교수 연 락 처: psk2022@osan.ac.kr 연구분야: 지역평생교육, 학습공동체, 고등평생교육
안 현 용 Ahn, Hyunyoung	소 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책책임역 연 락 처: ahyong@nile.or.kr 연구분야: 고등평생교육, 지역대학혁신, 디지털평생교육

<Abstract>

Exploring How Adult Learners' Learning Experiences in Junior Colleges Alter Their Perceptions of Community Engagement and Local Settlement Intentions

Sunkyong Park (Osan University)

Hyunyong Ahn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ffects of adult learners' learning experiences in junior colleges extend beyond personal growth to shape their perceptions of community engagement and local settlement intentions within the context of lifelong higher educatio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participants enrolled in an adult-friendly curriculum at O University,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paradigm.

The findings indicate that learning content reflecting life transitions and local context enhanced motivation to participate, whereas community-based learning and emotional support facilitated learning persistence and changes in role perception. In addition, practice-centered curriculum experiences enabled learners to perceive themselves as connected to the local community, leading to a greater appreciation of community engagement and stronger local settlement intentions.

- **Key words:** lifelong higher education, adult learners, learning experiences, community participation, local settlement intention

접 수 일: 2025. 12. 29

심 사 일: 2026. 1. 15

게재확정일: 2026. 2. 9